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o Kill a Mockingbird* As ‘One Book’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2 『앵무새 죽이기』의 평가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앵무새 죽이기』의 ‘한 책’ 선정 이유 |
| 1.2 연구의 방법 | 4. 『앵무새 죽이기』 선정 도시의 사례 |
| 2. 선행연구 | 4.1 Irving의 TBR |
| 3. 『앵무새 죽이기』의 분석 | 4.2 Staten Island의 TBR |
| 3.1 『앵무새 죽이기』의 연도별 선정 추이 | 5.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및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TBR)’에서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한 권의 책(One Book)’으로서의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과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2001년-2014년 사이 86개 ‘한 책, 한 도시’ 프로그램 및 2007년-2015년 사이 138개 TBR 지역사회에서 선정되었다. 많은 지역사회가 용기, 관용, 정의 등 주제로 표현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였고, 독서토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로 이 가치를 표현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book,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as the most favored ‘One Book’ and the goals of the ‘One Book, One City’ programs which selected this particular book. A total of 86 ‘One Book’ programs from 2001 through 2014 and 138 The Big Read programs from 2007 through 2015 selected *To Kill a Mockingbird* as ‘One Book’ to read. With this book, many communities discussed the sympathy toward the dignity of human being with such subjects as courage, justice, and integrity, and presented its value through book discussions, various programs and event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미국독서운동; 빅 리드; 『앵무새 죽이기』; 원 북, 원 시카고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The Big Read; *To Kill a Mockingbird*; One Book, One Chicago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1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15-133,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115>)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ommunity)’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지난 1998년 미국 Washington 주 Seattle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미국 전역의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지역사회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선정 책을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s에 자발적으로 등록한다. 이 센터 웹사이트의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내 ‘주별(州別) 프로젝트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3a) 및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3b)에 따르면, 미국 전역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은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이하 『앵무새 죽이기』라 부름)이다. 이 책은 2014년 4월 현재 모두 86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가장 선호되는 책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여 시작한 전국적 문학독서 이니셔티브인 The Big Read(이하 TBR이라 부름)에서도 2006년 시범사업 이후 2007년부터 2014-2015년 사이 138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였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정된 책들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한 책’ 독서운동의 시작부터 성장과 변화를 추적하고, ‘한 책’으로 선정된 주요한 책들의 특성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던 이전 연구(윤정옥 2014)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전 연구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한 책’으로 선정된 책들이 보여주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가치와 목표 등 집합적 특성의 분석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가 갖는 ‘한 권의 책(One Book)’으로서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현재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독서운동 프로젝트들의 주별 리스트 및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에서 『앵무새 죽이기』를 선정한 ‘한 책’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문헌 및 웹 자원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책을 선정한 ‘한 책’ 프로젝트들 중 몇 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 책 선정의 기준과 이유, 이 책과 관련하여 진행한 행사와 프로그램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BR 참가 지역사회와 선정 도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한 책’ 독서운동의 전체적인 동향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2013년 6월 당시 수집하여 정리한 ‘한 책’ 독서운동 프로젝트들의 주별 리스트 및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를 주로 참조하였고, 2014년 4월 현재 ‘한 책’ 프로그램 총수나 전체 선정 책의 종수 등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한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가 갖는 위상에는 변동이 없고,

이 연구의 목표가 전체 프로그램이나 책 선정의 추이 분석이 아니라, ‘한 책’ 자체로서의 특성과 의미, 가치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최근 ‘한 책’ 독서운동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초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 ‘한 책’ 프로젝트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문헌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점차 이들의 누적된 경험을 서술하고 평가하는 문헌이 늘어나고 있다. Dempsey(2009)는 1998년 ‘Seattle Reads(초기엔 If All of Seattle Reads the Same Book)’의 시작, 2001년 ‘One Book, One Chicago’의 성공, 이어지는 ‘One Book’ 프로젝트의 확산, ‘The Big Read’의 출범 등 주요한 ‘한 책’ 프로젝트들의 발전을 검토하였다. Dempsey는 ‘Seattle Reads’의 산파적인 Nancy Pearl을 인용하며, ‘한 책’ 독서운동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에는 사서가 사서답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즉 책을 고르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책과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것 같은 상이한 기술들을 한데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한 책’ 독서운동의 인기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 하나는 사서들이 직원 및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이것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하며, 몇몇 ‘한 책’ 프로젝트들의 목표 설정, 책의 선정, 지역사회 참여 유인 등을 논하고 있다.

Luther와 Woods(2013)는 Maryland 주의 ‘One Maryland One Book Program(OMOB)’

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진행된 OMOB는 고등학생과 성인 독자들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대화와 시민 참여를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 인문학을 이용”하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예를 들어 뇌수종을 가진 작가의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Alexie 2007)을 선정하여 읽음으로써 신체장애와 미국원주민으로서 겪는 문화적 차이 같은 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다룬 경험을 서술하였다. OMOB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 및 사회경제적 약자 같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관심 등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이 “혁신적 프로그램”(Fialkoff 2001)임은 일찍부터 인정된 바이지만, Schwartz(2014)는 어떤 도서관은 한 권의 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함께 읽는 혁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California 주 Sacramento Public Library(SPL)는 Edgar Allan Poe를 주제로 한 ‘One Book’ 프로젝트를 위해 도서관 그래픽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지역 시인인 교수가 텍스트를 편집하여 Poe의 작품 모음집 *The Slender Poe*를 직접 펴냈다. SPL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가 출판 서비스인 I Street Press를 통해 책을 출판하고 720권을 인쇄하여 125권은 도서관 장서에 편입시키고, 60권은 북클럽이 사용하며, 일부는 유료로 판매했다. 또한 Sacramento Film & Music Festival과 연계하여 Poe 프로젝트 영화를 상영하고, 지역 맥주회사와 파트너십으로 ‘One Book’ 프로그램을 위해 ‘Edgar Allan Porter’라는 브랜드의 맥주를 생산하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중앙

도서관과 29개 분관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고, Poe Project 필름은 온라인 상 20,000여 회 관람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도서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은 비교적 표준적, 안정적인 ‘한 책’ 독서운동이 개별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밖에 McSwain(2008)은 South Australia에서 “독서를 장려하고 찬양하기 위한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Salisbury Reads’ 일환이며, Salisbury Writers Festival의 부분으로 진행되는 ‘One Book One Salisbury’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것은 남부 호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로서 매년 청소년을 위한 책과 어른을 위한 책을 각각 한 권씩 선정하여 읽으며,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의 책을 중요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윤정옥은 최근 연구(2014)에서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 선정 책들의 계량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웹사이트 ‘한 책’ 독서운동의 주별 및 작가별 리스트에 등록된 2,220개 프로그램 선정 책 1,037종을 중심으로 연도별 선정 분포와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선정 책들의 연도별 프로그램 분포, 선호된 책의 연도별 추이, ‘Seattle Reads’와 One Book, One Chicago 같은 선도적 ‘한 책’ 프로젝트들이 책 선정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조찬식(2013)은 국내의 ‘한 책’ 독서운동 사례로서 ‘2012 독서의 해’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검토하였다. 그는 대중독서운동의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내용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한 책’의 선정과 행사, 독서토론, 독서토론 아카데미, 마을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북스타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밖에는 ‘한 책’ 독서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대부분 국내외 ‘한 책’ 관련 연구들은 특정한 ‘한 책’ 프로젝트의 사례 혹은 누적된 ‘한 책’ 독서운동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 책’ 독서운동의 중심에 있는 책들이 각각 ‘한 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첫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3. 『앵무새 죽이기』의 분석

3.1 『앵무새 죽이기』의 연도별 선정 추이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13년 6월 당시까지 선정된 책들은 모두 1,561종이다. 이들 중 한 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의 중복을 제거한 고유한 책은 1,037종이며, 이들을 선정한 ‘한 책’ 프로그램의 수는 모두 2,220개에 이른다. 실제로 이 시점까지 시행된 ‘한 책’ 프로그램은 모두 2,102개였지만, 여기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용 등을 구분하여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경우도 있어서, 이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2,220개로 보았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1,037종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것은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로서 모두 8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윤정옥 2014). 2014년 4월 이를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2개 프로그램이 추가로 등록되어 모두 86개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하였으며, 여전히 부동의 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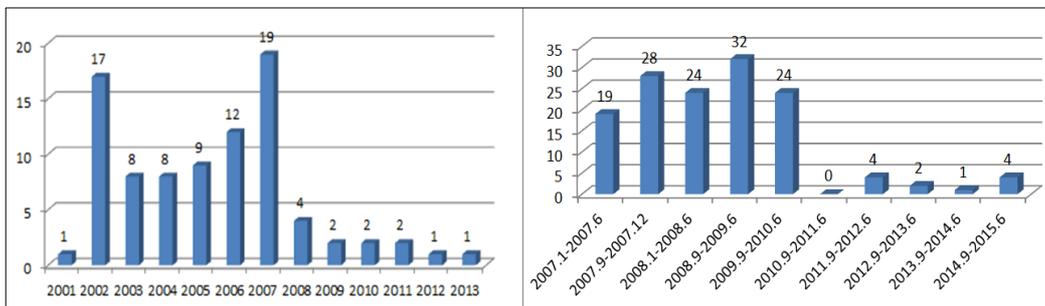
그동안 ‘한 책’ 독서운동의 연구에서 ‘프로젝트’는 특정한 지역사회의 개별 ‘한 책’ 독서운동 자체를, ‘프로그램’은 개별 ‘한 책’ 프로젝트에서 한 번의 시행 사례를 각각 의미하도록 용어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앞서 언급한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 of ‘한 책’ 독서운동 저자별 리스트 및 주별 리스트에 따르면 『앵무새 죽이기』는 2013년 6월에는 8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4년 4월 현재에는 8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리스트에서 2006년 11개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하였고, 2012년에는 선정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등록되었던 것이, 2014년 리스트에는 2006년 12개 프로그램, 2012년에는 1개 프로그램이 각각 등록되어, 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 책을 선정한 것으로 뒤늦게 등록이 확인된 ‘한 책’ 프로그램은 Sioux City, Iowa and South Sioux City, Nebraska(*Regional program)이고, 2012년 새로 등록된 프로그램은 Massachusetts 주 Milton의 ‘Milton Reads’이다. ‘Milton Reads’는 Milton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한 책’ 프로젝트로서 2012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책을 선정하였다. 이 ‘한 책’ 프로젝트는 몇 개 되지 않은 2010년 이후 출범한 후 발주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앵무새 죽이기』가 2002년에는 17개 프로그램, 2007년에는 1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두 차례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이 되었다.

〈그림 1〉은 『앵무새 죽이기』의 연도별 선정 추이를 보여준다. 왼쪽 도표는 『앵무새 죽이기』가 ‘One Book, One Chicago’에서 처음 선정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의 ‘한 책’ 프로젝트들의 선정 추이를 보여준다. 오른쪽 도표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BR의 2007년 정식 출범부터 최근 지역사회 선정을 마친 2014년-2015년까지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1〉 연도별 『앵무새 죽이기』 선정 프로그램: ‘한 책’ 프로그램, 2001-2013(왼쪽 도표) ; TBR, 2006-2015(오른쪽 도표)

〈그림 1〉의 왼쪽 도표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8개 ‘한 책’ 프로그램, 2005년에 9개 프로그램, 2006년에 12개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했고, 2007년에는 19개 프로그램, 2008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개 프로그램,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개씩의 ‘한 책’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1〉의 오른쪽 도표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역사회를 공모했던 TBR 공식 사업 첫 해인 2007년 1월-2007년 6월에는 19개, 2007년 9월-2007년 12월에는 28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였고, 2008년 1월-2008년 6월에는 24개, 2008년 9월-2009년 6월에는 32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47개와 56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읽은 것이다. 일 년 단위로 공모를 시작한 2009년 9월-2010년 6월에는 24개, 2011년 9월-2012년 6월에 4개, 2012년 9월-2013년 6월에 2개, 2013년 9월-2014년 6월에 1개, 그리고 2014년 9월-2015년 6월에는 4개 지역사회가 각각 이 책을 선정하였다. 유일하게 2010년 9월-2011년 6월 사업에는 아무도 이 책을 선정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식 사업 기간 동안 모두 138개 지역사회가 『앵무새 죽이기』를 선정하였다.

『앵무새 죽이기』의 선정과 관련하여 ‘한 책’ 프로젝트와 TBR 사이 직접적 상관관계는 다소 모호하다. 윤정옥(2014)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TBR에 참여한 46개 지역사회가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으나, 그 해 Center for the Books 웹사이트에 등록된 17개 ‘한 책’ 프로젝트들 중 단지 3개 지역사회만 ‘TBR’임을 명기

하였다. 나머지 14개 ‘한 책’ 프로젝트들은 TBR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읽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책’ 프로젝트에서 2002년을 정점으로 『앵무새 죽이기』 선정 지역사회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6년과 2007년에 크게 늘어난 것은 TBR에 이 책이 권장도서로 포함되어, 가시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3.2 『앵무새 죽이기』의 평가

이처럼 많이 ‘한 책’으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는 어떤 책인가? 이 책에 대한 평가는 Library of Congress가 “Celebration of the Book”의 다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편성한 “Books That Shaped America” 목록에서 일별할 수 있다. 모두 100권의 책이 수록된 이 목록에 대하여 Library of Congress 관장 James H. Billington은 이것이 “가장 훌륭한 미국 책들의 명단은 아니며, 그보다는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책에 대하여 전국적 대화를 촉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이 목록 소개문에 따르면 1960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앵무새 죽이기』는 발간 즉시 “작가에게 엄청난 비평적 및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3천만 카피 이상이 인쇄되었다. 하퍼 리는 부당하게 기소된 흑인을 변호하는 소도시 변호사인 애티커스 핀치라는 미국 문학사상 가장 영속적인 영웅적 인물을 창조해냈다.” 또한 목록은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1961년 Washington Post의 서평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관용에 대한 백 파운드의 설교, 혹은 관용의 결핍을 개탄하는 같은 분량의 독설도 계몽이라는 저울에서

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을 가진 단 18은 스짜리 새로운 소설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다”(Library of Congress 2014).

한편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내 많은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대중적인 책이다. 2014년 9월 18일 현재 OCLC의 종합목록 WorldCat에 포함된 *To Kill a Mockingbird*(Philadelphia: Lippincott, ©1960)의 서지레코드는 미국 내에서만 485개 판(edition)이 4,913개 도서관 및 도서관 시스템에 소장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책’ 프로젝트들에서 『앵무새 죽이기』 다음으로 많이 읽힌 *Fahrenheit 451*(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7?])은 400개 판이 4,297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The Kite Runner*(New York: Riverhead Books, 2003)는 162개 판이 4,024개 도서관에, *The Great Gatsby*(New York, NY: Scribner, [1996])는 938개 판이 4,567개 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각 서지레코드에 나타난 소장 도서관 수가 미국 내 전체 도서관 소장의 완전한 통계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동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앵무새 죽이기』는 또한 많이 읽히기도 하는 책이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책 한 권을 읽은 다음 퀴즈를 풀어서 독서수준과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Accelerated Reader(AR)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2012-2013년 학사연도 동안 미국 전역의 31,195개 학교에서 980여만 학

생의 독서기록이 등록되었고,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읽은 전체 3억 1천 8백만 권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의 목록이 ‘Top 20 books read overall and by gender, grades 1-12’로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학년별로 여학생, 남학생, 그리고 전체의 20위 목록에서 『앵무새 죽이기』는 690,959명의 8학년 독자들 중 여학생 16위, 전체 20위, 182,729명의 9학년 독자들 중 남학생 4위, 여학생 3위, 전체 3위, 134,767명의 10학년에서 남학생 6위, 여학생 5위, 전체 5위, 그리고 107,301명의 11학년에서 남학생 11위, 전체 12위의 순위에 올랐다. 『앵무새 죽이기』는 ATOS 도서수준¹⁾은 5.6, 흥미수준은 UG(Upper Grade. 9-12 학년)으로 평가된다. 각 학년별 20위까지 책들의 ATOS 도서수준 전체 평균치가 8학년은 5.2, 9학년은 5.6, 10학년과 11학년은 각각 5.7인 것을 보면 『앵무새 죽이기』는 평균치를 넘어서는 독서 및 흥미수준의 책이다(Renaissance Learning 2014, 13-16). 이 책은 또한 학년별로 달성해야 할 본문난이도 수준을 나타내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 9-10 band’의 ‘Stories’ 목록에 오른 12권 가운데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의 5.54%가 읽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인 Franz Kafka의 *The Metamorphosis*는 1.62%, 또 다른 예로 4위인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은 1.28%, 가장 적게 읽은 Michael Shaara의 *The Killer Angel*은 0.04%의 학생들이 읽었다. 이처럼 다른 책들이 1% 안팎의 독서율을 보인 데 비해 『앵무새 죽이기』는 현저히 많은 학생들이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연령대의

1) Renaissance Learning, Inc.가 개발한 본문난이도 측정 수준으로서 평균 문장 길이, 평균 단어 길이, 단어 난이도 등을 사용한다.

'Common Core State Standards: 6-8 band'의 'Stories' 목록에서는 가장 많이 읽힌 Mildred D. Taylor의 *Roll of Thunder, Hear My Cry*는 2.27%, 'Common Core State Standards: 11-CCR(College and Career Readiness) band'에서 *The Great Gatsby*는 6.82%가 읽었다(Renaissance Learning 2014, 49-51).

일반 독자들의 자율적인 평가에서도 『앵무새 죽이기』는 눈에 띄게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이 자유롭게 서평을 올리며, 이 서평들이 OCLC WorldCat에 이용자 서평으로서 링크되는 GoodReads.Com(2014)에서는 "Best Books of the 20th Century"를 선정하였다. 20세기, 즉 19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간행된 책들 중 가장 훌륭한 책을 투표하도록 한 데서 이 책은 1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 5월 21일 현재 이 리스트에 37,199명의 독자가 투표하였고 모두 5,531권의 책이 올라와 있다. 이들 가운데 『앵무새 죽이기』는 5개의 별점에 평균 4.23개 별점으로 평가됐고, 총점은 1,007,189점,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투표한 사람은 10,183명이었다. 이 리스트에서 2위를 차지한 George Orwell의 *1984*가 평균 4.09개의 별점, 총점 628,041점, 투표자 6,400명, 3위를 차지한 J.R.R. Tolkien의 *The Lord of the Rings (#1-3)*가 평균 4.43개의 별점, 총점 567,899점, 투표자 5,77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앵무새 죽이기』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평가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읽을거리로서의 『앵무새 죽이기』는 종종 반론이나 이견이 많은 논쟁적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은 매년 개인이나 단체들이 전국의 학교나 도서관에서 제거하

도록 요구하는 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앵무새 죽이기』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금지 혹은 도전되는(banned or challenged)" 책들로 이 책은 *The Great Gatsby*, J. D.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 등과 더불어 가장 자주 도전받는 책들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ALA 2014a).

『앵무새 죽이기』가 도전 받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욕설로 여겨지는 "damn"과 "whore lady"와 같은 용어의 사용(Eden Valley, MN, 1977), 흑인 비하 및 인종차별적 용어인 "nigger"와 같은 표현 사용(Waukegan, Illinois School District, 1984; Kansas City, Missouri junior high schools, 1985), 작품 자체가 "상스러운, 쓰레기 같은 소설"이라는 평가(Vernon Verona Sherill, New York School District, 1980), 작품이 "긍정적인 인종 통합 과정에 심리적인 손상을 가한다",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미명 아래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낸다"(Warren, IN Township Schools, 1981),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한다"(Lindale, Texas, 1995)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언급되었다.

특히 작품 속에 묘사된 흑인에 대한 인종적 욕설이나 차별,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행동이 흑인 어린이 독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Glynn County, Georgia, 2001; Muskogee, Oklahoma High School, 2001),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Normal, Illinois, Community High School, 2003; Stanford Middle School, Durham, North Carolina, 2004; Brentwood, Tennessee, Middle School, 2006;

Cherry Hill, NJ Board of Education, 2007). 많은 경우 그러한 일부의 도전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장서로 잔류되었지만, 결국 학교 교육과정의 독서 목록에서 제거되기도 한 사례(St. Edmund Campion Secondary School, Brampton, Ontario, Canada, 2009)(ALA 2014b)도 없진 않다.

3.3 『앵무새 죽이기』의 ‘한 책’ 선정 이유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앵무새 죽이기』의 문학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평가는 만장일치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책’ 독서운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 혹은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싶어한 책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정한 지역사회가 어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할 것이다. 또한 같은 책을 읽어도 지역사회마다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한 책’ 프로젝트가 『앵무새 죽이기』를 함께 읽고 토론할 한 권의 책으로 선택했을 때, 그 선정의 이유 혹은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은 ‘한 책’ 독서운동에 적합한 책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쟁점, 인물 및 주제”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책 선정의 지침은 무엇보다도 ‘한 책’ 독서운동이라는 이니셔티브에서 명시한 목표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ALA 2003, 15-16). Seattle Public Library 사서로서 1998년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의 출범을 이끌었던 Pearl (2013)은 최근 독서그룹에서 토론하기 좋은 소설책의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첫째, “모호한 결말”을 가진다, 둘째, 책의 주인공이 자기 여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작가가 소설의 내러티브 구조에 “평범하지 않은 무엇”을 한다. 넷째, 화자를 “신뢰할 수 없다.” 『앵무새 죽이기』는 어느 정도 이런 속성을 담고 있다.

Dempsey(2009)는 ‘한 책’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책들에는 뭔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면서, Pearl이 “토론할 수 있는 ... 토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discussable ... compulsibly discussable)” 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를 인용하였고, 독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또한 『앵무새 죽이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다.

한편 ‘한 책’ 독서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과 프로그램의 연계는 처음 Seattle에서부터 강조되었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3)도 중요시 하였으며, TBR에서 매뉴얼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TBR은 아예 지역사회가 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잘 알릴 수 있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권장하였다.

- 개막행사: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작을 알린다.
- 선정된 책이나 시에 관하여 적어도 한 번의 기초행사: 예를 들어 대표적 전기 작가의 강의, 패널 토론, 혹은 저자 낭독회 등.
-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최소한 두세 번의 특별행사: 예를 들어 책을 각색

한 영화, 선정 작가에 관한 영화, 혹은 극화 낭독 등.

- 다양한 장소에서 책이나 작가에 관한 최소한 10-50회의 토론: 예를 들어 도서관, 서점, 박물관과 같이 다양한 청중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9b).

『앵무새 죽이기』는 어쩌면 상기한 조건들을 잘 반영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의 선정 이유를 살펴보았다.

3.3.1 주제와 이야기거리

첫째, 『앵무새 죽이기』는 강력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토론할 이야기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09a)는 일찍이 TBR 선정도서 31권의 주제를 성장, 용기, 범죄와 정의, 정체성, 관용, 상실, 사랑이라는 7개 범주로 나누어 소개한 바 있다. 『앵무새 죽이기』는 그 가운데 상실을 제외한 6개 주제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R 선정도서 중 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를 담은 *The Poetry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Things They Carried*가 5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한 것에 비하면 이 책의 주제 다양성이 돋보인다. 주제 다양성은 산발된 주제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하나의 큰 주제로 통합되어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최초의 ‘One Book, One Chicago’는 『앵무새 죽이기』를 선정할 때, 이 책이 인간의 편견과 이해, 용서, 인종, 성별 갈등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와 관용’이라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오

늘날 세계에 관련된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발적인 토론’을 불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하였다(Chicago Public Library 2003a).

최근 새로 시작된 몇 안 되는 ‘한 책’ 프로젝트들 중 하나인 Massachusetts 주 Dedham의 ‘Dedham Reads Together’도 2011년 출범 첫째 이 책을 선정하였다. Dedham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Dedham Reads Together’의 목표는 “주민들이 동시에 같은 책을 읽고, 공통된 주제로 대화에 불을 붙이며, 일련의 즐거운 행사를 즐기면서 지역사회를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특별히 책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Dedham Reads Together 2011’에서는 『앵무새 죽이기』가 발간 50주년이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고전”으로 최초의 Dedham 범 지역사회 독서 프로그램에 완벽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정의와 공감이라는 광범한 주제로부터, 이 책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하는 사람, 언어, 식물, 음식 등의 상세사항들까지, 토론하고 즐길 거리가 참 많다”고 하였다(Dedham Public Library 2014). 말하자면 내용과 주제의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은 독서토론만으로도 다룰 내용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 Missouri 주 Columbia의 Daniel Boone Regional Library (DBRL)가 주관하는 ‘One Read’는 2002년 ‘One Book, One Chicago’를 모델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 목표는 여가독서를 권장하고, DBRL 지역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장려하고, 독서토론 및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참여방법을 제공하며, 독서토론 그룹에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DBRL 2014a). 이들은 주민 추천으로 10권의 책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독서 패널리스트 2-3명으로 압축한 후 이를 다시 주민 투표에 부쳐 최종 책을 선정한다. 2003년 ‘One Read’는 『앵무새 죽이기』를 선정하였고, 당시 행사와 프로그램의 진행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NovelList Book Discussion Guides*(EBSCO Publishing 2001)를 갖고 독서토론을 진행했음을 보고하였다(DBRL 2014b). 이들이 시작단계에서 주민 추천으로, 최종단계에서 주민 투표로 이 책을 선정한 것은 같이 읽고 이야기할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제 혹은 이야기거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는 개별 지역사회의 선택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Wisconsin 주 Milton은 TBR로 ‘Milton Reads’를 진행하며 이 책을 읽었다. City of Milton과 Milton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Milton Reads’의 목표는 우리 환경, 관계 및 자신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도발하는 위대한 문학을 함께 읽음으로써 ‘시 전체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이 책의 주제가 “인종차별과 순수성의 파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Milton Public Library 2014). 역시 이 책을 읽은 2014년 Minnesota 주 St. Cloud에서 Great River Educational Arts Theatre가 주관한 TBR에서는 행사와 프로그램 소개에서 거듭 ‘진정한 용기’를 강조하였고, ‘순수함, 관용, 가족 및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용기’에 관한 책으로서 가치를 지역에서 살려 내고자 하였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4a).

3.3.2 행사와 프로그램의 연결

둘째, 『앵무새 죽이기』는 ‘한 책’ 독서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좋다. ‘One Book, One Chicago’도 책의 선정기준에 성인 독서토론 그룹, 작가의 방문, 연극, 영화, 전자도서 등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최초의 책인 『앵무새 죽이기』는 그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One Book, One Chicago’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이후 많은 ‘한 책’ 프로젝트에서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Chicago에서 상영된 1962년 제작 영화 『앵무새 죽이기』는 이후 많은 ‘한 책’ 프로젝트들에서도 상영되었고, 이 책의 부분이나 전체를 연극으로 공연하거나, 소설의 핵심적 내용인 탐 로빈스의 재판장면을 지역 법률가들이 모의재판으로 재현한 것 같은 프로그램(Chicago Public Library 2003b)도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되었다.

물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프로그램들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Dedham Reads Together 2011’은 독서토론 외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남부 스타일의 사교 티파티, 어린이를 위한 테디베어 티파티 등을 열었고, 폐막행사로써 Norfolk 법원에서 배우들이 직접 법정장면을 재현하는 공연을 했다. 앞서 ‘One Book, One Chicago’에서는 이를 실제 법조인들이 재현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지역의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책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되살리고자 했다(Dedham Public Library 2014).

2009년 TBR에 참여하여 이 책을 읽었던 Wisconsin 주 Milton의 ‘Milton Reads’는 ‘Milton Reads Kick-off!’ 출범행사에서 책의 짧은 극화

낭독, 책 나눠주기, *In Search of Mockingbird* 저자 Loretta Ellsworth의 낭독과 토론, 독서토론, 영화상영 및 디지털 뷔페 등을 진행했다. 그 밖에는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종이 '앵무새'에 자기 이름을 써서 도서관 곳곳에 붙여놓게 하는 'Autograph a bird at the library'를 진행했다 (Milton Public Library 2014).

아직 행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2014년-2015년 TBR에 참여하는 Florida 주 Fort Lauderdale도 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Florida Center for the Book at Broward County Library가 주관하는 이 TBR은 첫 행사로 2015년 1월 15일 Fort Lauderdale Public Library에서 "'앵무새 죽이기' Reader's Theatre"를 진행하며, 지역극단 The Playgroup, LLC가 『앵무새 죽이기』를 공연하고, 희곡작가와 문답 및 다과시간을 갖는다. Fort Lauderdale Film Festival의 예술영화 극장인 Cinema Paradiso에서는 영화 상영과 토론을 한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4c).

Michigan 주 Holland의 Hope College가 주관하는 TBR 또한 단 두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된다. 11월 11일 Knickerbocker Theatre에서 'To Kill a Mockingbird: Free Film Event'를 연다. 이 영화를 보고 어째서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인지 생각해보자고 한다. Holland Museum에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창작한 협동 예술 프로젝트를 전시하며 리셉션을 열고, 이것으로 『앵무새 죽이기』 축하를 마무리한다. 이 TBR 주관기관인 Hope College는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및 5개의 지역 학교들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독서그룹을 구성하고 독서토론을 진행한다(Hope College 2014).

4. 『앵무새 죽이기』 선정 도시의 사례

모두 224개에 이르는 『앵무새 죽이기』를 선정한 '한 책' 프로그램이나 TBR에서 이 책을 토론함과 더불어 나름대로 고유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활동의 세부사항을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One Book, One Chicago'처럼 공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과 행사 등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One Book, One Chicago 2014)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을 읽은 '한 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2007년 이전에 몰려있고 당시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BR을 통해 최근 『앵무새 죽이기』를 읽는 두 개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Irving의 TBR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진행되는 2015 TBR에는 모두 77개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4개 지역사회가 『앵무새 죽이기』를 읽기로 하였다. 이들 중 Texas 주 Irving의 Irving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TBR은 모두 37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4b).

이들은 출범행사로 2014년 9월 27일 'Harper's Bazaar-The Big Read Kickoff 2014'를 지역 센터에서 열면서 1930년대 생활의 일면을 경험해보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마치 당시의 작은 타운 박람회에 간 것처럼 음식, 페이스페인팅, 동물, 장사꾼, 게임과 스토리텔링 등을 포함하며, 합창단과 밴드 등의 음악공연도 볼 수 있다.

출범행사 이전에 9월 한 달 동안 모든 도서관들에서 열리는 ‘Boo’s Cards Teen Art Contest’는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트레이딩카드 크기 예술작품을 만든다. 또한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나무로 새집 짓기 공작을 한다.

이 Irving의 TBR은 또 다른 책으로 확장된다. 초등학생들은 Christopher Paul Curtis의 *The Watsons Go To Birmingham-1963*을 토론하고,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 소설은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당시 1963년 9월 Alabama 주 Birmingham의 흑인교회 폭파사건을 배경으로 하며, 『앵무새 죽이기』와 많은 것을 공유하는 작품이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여러 도서관에서 열리는 ‘Meet the Sneetches’에서는 Dr. Seuss의 인종적 관용에 관한 스토리 인물인 스니치와의 파티에 아이들을 초대한다. 새를 주제로 한 유치원생 및 가족 스토리타임, 앵무새를 주제로 한 영유아 스토리타임과 인형극을 공연하며, 같은 제목으로 18개월부터 2살까지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타임, 가족을 위한 이개국어 스토리타임, 3살부터 5살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타임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Central Irving Library에서 ‘Walking with the Power of One’이라는 영유아, 유치원생 및 보호자를 위한 스토리타임 스토리 워크를 두 차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힘(Power of One)”을 주제로 하며 “아무도 일어서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건잡을 수 없게 된다. 한 사람이 함께 해 줄 때까지...”를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Central Irving Library의 미스터리 북클럽 ‘Midweek Mysteries’ 등 여러 도

서관 분관을 비롯하여 노인센터 같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많은 독서토론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East Branch Library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책을 토론하고, 전통적인 남부스타일 디저트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Central Irving Library에서 ‘The Based on Reality’ 북클럽이 Marja Mills의 Lee 진기 *The Mockingbird Next Door* 독서토론을 하며, Central Irving Library에서는 ‘Mockingbirds, Justice and Race: A Conversation’이라는 패널 토론회를 갖는다.

여러 차례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앵무새 죽이기』 영화 프로그램이 도서관들에서 4차례 진행되고, 2013년 제작된 ‘The Watsons Go to Birmingham’ 영화도 4차례 상영된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종일 법정 드라마 영화들을 시청하는 ‘Courtroom Drama Movie Marathon’도 진행된다.

그밖에도 다양한 음악과 공연 프로그램이 있다. Central Irving Library에서 ‘슬픔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흑인영가를 공연한다. ‘The “Hey Boo” Haunted House’는 참가자들이 의상을 입고 사탕, 게임,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헬러윈 파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National Scouting Museum에서는 ‘The Mockingbird on Trial’으로 소설의 법정장면을 모의재판으로 공연한다.

Irving의 TBR은 이처럼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어른,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각 혹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아울러 *The Watson’s Go to Birmingham-1963*, *The Mockingbird Next Door* 등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앵무새 죽이기』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4.2 Staten Island의 TBR

New York 주 Staten Island의 Staten Island OutLOUD 주관 TBR은 2014년 9월 12일 New Dorp Branch Library의 독서토론을 필두로 하여, 4차례 독서토론을 하고, 모두 3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Staten Island Museum의 연례 쇼, 지역사회 행사인 아프리카 자부심 퍼레이드, 웨스터리 파크 축제, 지역 NAACP 기념행사에서 책 나눠 주기가 진행된다.

지역 리치몬드 옛동네 제삼법정에서는 'A Conversation on Atticus Finch, Defense Attorney'라는 프로그램으로 Staten Island OutLOUD와 Staten Island Women's Bar Association이 책 속의 변호사 Finch라는 인물을 토론하고, Tom Robinson 재판 전략을 검토하며, 저명한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조언과 함께 작품의 법정장면을 재현한다.

한편 St George Library Center에서 어른을 위한 창작 워크숍 'Mockingbird Memoirs'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0월초 워크숍 세션에서 소설적 회고록으로서 책을 탐구하고, 주인공 Scout가 2년간의 기억을 돌아보는 것처럼, 참가자들이 어린 시절 중요한 순간의 기억에 바탕을 둔 글을 쓰고 읽기를 한다.

지역의 카페에서는 'Music & Words of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를 진행하며, 『앵무새 죽이기』 출판 당시 발생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인권운동의 음악을 연주한다. 이 소설의 구체화에 도움을 주었던 미국 인권운동에서 몇 가지 발화점에 관련된 본문과 함께, 소설의 초록을 읽고 토론한다. 예를 들어

50주년이 된 1964년 '인권법' 통과에 관한 신간 도서 2권을 다룬다. 또한 미국대법원의 역사적인 학교 통합 결정과 미시시피 주에서 살해된 14세 흑인 소년 Emmett Till 사망 60주년 등도 다루며, 책의 법정장면에 부분적으로 영감을 준 Scottsboro Boys 관련 글도 찾아본다.

지역의 교회에서 열리는 'In Search of the Mockingbird'는 책에 영감을 받은 음악과 춤을 공연하고, 연기자, 초대손님 및 참가자들이 토론한다. 리치몬드 옛동네에서는 'The Mockingbird At Home'을 진행하며 큐레이터가 책 배경인 1930년대 컬렉션의 물건들을 보여주며, 작품 속 메이콧이라는 가상적 마을에서 주인공과 이웃들이 사용한 것들과 유사한 옷, 사진, 살림살이 등을 탐구하며, 책을 읽고 토론한다.

지역 갤러리에서는 어떻게 소설을 영화대본 형식으로 변환했는지에 관한 토론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Staten Island Academy에서는 학생들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예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학교 강당에서 시민 공개 독서토론도 연다.

지역 교회에서 『앵무새 죽이기』 및 Staten Island Chapter of the NAACP 창설을 주제로 'Building Bridges to Understanding-NAACP on Staten Island'를 연다. 흑인 인권단체의 지역 활동과 이 책의 의미를 연결한 행사이다. Richmondtown Branch Library의 'A Civil Rights Oral History'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하며, 앨라배마에서 젊은 목사로서 일했던 지역 출신 Rev. George McClain의 직접적 경험을 들어본다. 그는 Freedom Riders와 같이 일했고, 유권자 등록운동 조직을 도왔던 사람이다.

St George Library에서는 1962년 제작 영화

를 상영하고, Noble Maritime Collection의 ‘Harper Lee & Truman Capote’에서는 Lee의 어린 시절 친구이며 등장인물 Dill의 모델이었던 작가 Truman Capote를 함께 다룬다. Capote의 인생과 작품을 다룬 *Pink Triangle* 공저자인 지역작가 겸 출판가 Danforth Prince를 초청연사로 하여 등장인물들에 관하여 읽고 대화를 나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도 있다. 지역 Greenbelt Nature Center의 ‘Mockingbird In the Greenbelt’, Clay Pit Ponds State Park의 ‘Mockingbird at Clay Pit Ponds’에서 책을 토론하고 숲길을 걷는다. ‘The “Mockingbird” Community & Tottenville’에서는 책, 메이콕과 토튼빌 지역사회, 역사와 사람들을 비교한다. 지역 창작 사진가 조합에서 열리는 ‘Let Us Now Praise Famous Men’은 이 책과 대공황 당시 앨라배마의 생활을 탐구한 사진 에세이인 James Agee와 Walker Evans의 *Let Us Now Praise Famous Men*을 지역 사진가 Gail Middleton 인도로 토론한다. 그리고 ‘The Christmas that Changed Her Life’라는 지역사회 토론에서는 책과 Lee의 회고록 기사인 ‘Christmas To Me’를 읽고 토론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의 면모를 보면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자체의 내용에서 역사, 사회, 사회, 예술의 여러 측면으로 연결되는 풍요한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흑인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면서, 한 권의 책이 사회 현상을 그리지만, 아울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 및 TBR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를 읽은 지역사회들이 이 책을 선택하며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모두 86개 ‘한 책’ 프로그램과 138개 TBR이 이 책을 읽었지만 전체를 살펴보기 어려워, 몇몇 지역사회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지역마다 주제의 상이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책 한 권을 매개로 하여, 책 자체 및 책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디에서든 용기, 정의, 관용, 가족과 같은 주제들이 강조되었고, 내용 속 세부사항들이 하나 하나 이야기거리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남부나 작은 마을 생활양식, 시대적으로 1930년대나 1960년대 생활상 같은 구체적 대상이 담론의 주제가 되며, 심지어 좁게는 앵무새부터 넓게는 새의 의미, 10월의 할러윈 행사 등까지 독립적 주제이자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룬 미국 사회가 자행한 흑백차별이라는 역사적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 및 인권운동, 실제 체험자 등으로 주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독서토론에서 직접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표현되었다.

더욱이 Lee나 Capote 등 저자 및 등장인물에 관련된 책과 작가, 같은 주제를 다루는 *The Watson's Go to Birmingham-1963*, *The Mock-*

ingbird Next Door 등 다른 책들로도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 죽이기』가 가진 '한 권의 책'으로서의 가치는 한 마디로 요약하긴 어렵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Scout라는 한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시작되어 자아, 가족, 이웃,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1960년대 미국이라는 특정 시점의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작금의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로까지 확장되어가는 주제에 대한 공감 때문일 수 있다. 『앵무새 죽이

기』의 다양한 소주제들을 단서로 한 모든 독서 토론,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공감을 표현하고 확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다른 책을 선택한 '한 책' 프로그램들이 그 책을 왜 선택하였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암시된 공감이라는 의미가 다른 책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결과로 '한 책' 독서운동의 의미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이해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윤정옥. 2014.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171-194.
- [2]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online] [cited 2007. 1. 18.]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a. "Banned & Challenged Classics." [online] [cited 2014. 5. 8.] <<http://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classics>>
-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b. "Banned and/or Challenged Books from the Radcliffe Publishing Course Top 100 Novels of the 20th Century." Doyle, Robert P. 2010. *Banned Books: Challenging our Freedom to Rea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4. 5. 8.] <<http://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classics/reasons>>
- [6]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a.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Introduction." [online] [cited 2003. 5. 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nebook/mockingbird.html>>
- [7]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b.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Book Discussion and Special Events." [online] [cited 2003. 5. 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nebook/bkdiscuss.html>>

- [8] Cincinnati Public Library. 2005. On the Same Page. “The Kite Runner.” [online] [cited 2011. 2. 6.] <<http://www.cincinnati.org/samepage/2005/tkrbook.html>>
- [9] City of Milton and Milton Public Library. Wisconsin. “Milton Reads.” [online] [cited 2014. 4. 24.] <<http://miltonreadswi.blogspot.kr/2009/03/milton-reads-kick-off-wednesday-april-1.html>>
- [10] Daniel Boone Regional Library(DBRL). 2014a. “One Read: About.” [online] [cited 2014. 9. 19.] <<http://oneread.dbrl.org/about/>>
- [11] Daniel Boone Regional Library(DBRL). 2014b. “One Read: 2003 Program: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online] [cited 2014. 9. 19.] <<http://oneread.dbrl.org/2003/09/01/2003-program/>>: “Discussion Guide.” [online] [cited 2014. 9. 19.] <<http://oneread.dbrl.org/wp-content/uploads/guides/2003-To-Kill-A-Mockingbird.pdf>>
- [12] Dedham Public Library. 2014. “Dedham Reads Together 2011. Celebrating 50 Years of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online] [cited 2014. 3. 24.] <<http://www.dedhamlibraryinnovationteam.com/drt-2011.html>>
- [13] Dempsey, Beth. 2009. “One Great Idea.” *Library Journal*, 134(14): 19-22.
- [14] Dempsey, Beth. 2004. “LJ News-FRONT DESK: Mockingbird Rules One-Book, One-City.” *Library Journal*, 129(14): 13.
- [15] Fialkoff, Francine. 2001. “Raising Readers.” *Library Journal*, 126(13): 74.
- [16] GoodReads.Com. “Best Books of the 20th Century.” [online] [cited 2014. 5. 21.] <http://www.goodreads.com/list/show/6.Best_Books_of_the_20th_Century>
- [17] Great River Regional Library. 2014. “Community Big Read.” [online] [cited 2014. 9. 10.] <<http://www.griver.org/event/pierz/community-big-read/2014-01-22/17471>>
- [18] Hope College. 2014. “Hope: News from Hope College.” August 2014. p.5. [online] [cited 2014. 9. 17.] <<http://www.hope.edu/pr/nfhc/archive/pdf/nfhc0814.pdf>>
- [19] Library of Congress. 2014. “Books That Shaped America.” [online] [cited 2014. 9. 18.] <<http://read.gov/btsa.html>>
- [20]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2013a.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online] [cited 2013. 6. 30.]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 [21]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2013b.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online] [cited 2013. 6. 30.]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
- [22] Luther, Frances D. and Woods, Ada. 2013. “Reading Promotion: Maryland Humanities Council’s One Maryland One Book Program for High School and Adult Readers.” *Delta Kappa Gamma*

Bulletin, 79(3): 25-28.

- [23] McSwain, Bernice. 2008. "Bringing It All Together: Salisbury Reads." *APLIS*, 21(2): 62-65.
- [24] Milton Public Library. 2014. Homepage. [online] [cited 2014, 9, 18.]
〈<http://www.miltonpubliclibrary.org/>〉
- [2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09a. "Our Books: Theme." [online] [cited 2009, 4, 20.] 〈<http://www.neabigread.org/books.php>〉
- [2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2009b. "Guidelines & Application Instructions." [online] [cited 2009, 4, 29] 〈<http://www.neabigread.org/guidelines.php>〉
- [2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13b. "History/Overview of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3, 11, 27.] 〈http://neabigread.org/program_history/〉
- [28]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2013c. "*To Kill a Mockingbird*. Preface." [online] [cited 2011, 2, 6.] 〈<http://www.neabigread.org/books/mockingbird/>〉
- [2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14a. "Great River Educational Arts Theatre." [online] [cited 2014, 9, 20.] 〈http://neabigread.org/communities/?community_id=2177〉
- [30]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14b. "Irving Public Library." [online] [cited 2014, 9, 20.] 〈http://neabigread.org/communities/?community_id=1265〉
- [31]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14c. "Florida Center for the Book at Broward County Library." [online] [cited 2014, 9, 20.]
〈http://neabigread.org/communities/?community_id=1136〉
- [32]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2014d. "Staten Island OutLOUD." [online] [cited 2014, 9, 20.] 〈http://neabigread.org/communities/?community_id=2134〉
- [33] One Book, One Chicago. 2014. Homepage. [online] [cited 2014, 9, 24.]
〈http://www.chipublib.org/browse_audience/browse-one-book-one-chicago/〉
- [34] Pearl, Nancy. 2013. "Check It Out." *Publishers Weekly*, 260(2): 20-21.
- [35] Renaissance Learning. 2014. *What Kids Are Reading: The Book-reading Habits of Students in American Schools*, 2014 ed. [online] [cited 2014, 9, 9.]
〈<http://doc.renlearn.com/KMNet/R004101202GH426A.pdf>〉
- [36] Rodney, Mae L. 2004.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65(3): 130-2, 155.
- [37] Schwartz, Meredith. 2014. "DIY One Book at Sacramento PL." *Library Journal*, 139(4): 30.
- [38] Van Dyke, Debby. 2005. "Building A Community of Readers": A One Book Program." *Library Media Connection*, 23(5): 20-2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Yoon, Cheong-Ok. 2014 “An Analytical Study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171-194.
- [2]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